

## (1) 씻김굿

씻김굿은 망자의 넋을 씻기는 정화의례이며, 넋을 씻김으로써 극락왕생하도록 하는 천도의례이다. 씻김굿은 사영(死靈)굿이지만, 이 굿의 여러 종류 중에서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복과 제액의 동기가 강하게 부각되는 굿도 있다.

### ① 곱머리 씻김굿

조상이 낫을 때 관을 방에다 두고 마당에서 하는 굿으로 대개 발인하기 전날 밤에 한다.

### ② 소상·대상 씻김굿

소상·대상날 밤에 한다.

### ③ 날받이 씻김굿

날받이는 택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곱머리 씻김굿과 같이 불시에 조상을 당하여 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미리 날을 받아 하는 씻김굿이면 모두 날받이 씻김굿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날받이 씻김굿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쓰이는 수가 더 많다. 즉 가족에 우환이 생겨 점을 쳐보니 돌아가신 어느 조상이 제대로 씻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괘가 나와 조상을 흠향시키고 씻기기 위해 하는 굿만을 날받이 씻김굿이라 한다.

곱머리 씻김굿이 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날받이 씻김굿에서는 씻김을 받는 조상도 여럿이고 그외에도 상당수의 친지의 넋이 초청되어 흠향하고 돌아간다. 또 곱머리 씻김굿이 사영 위주의 동기가 지배적인 데 비해 날받이 씻김굿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의 안녕이 상당히 큰 동기로 작용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어떤 거리들은 날받이 씻김굿에서는 포함되지 않지만 곱머리 씻김굿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초분 분장 때의 씻김굿

초분을 해체하고 분묘를 쓴 날 밤에 마당에서 행하는 굿이다.

### ⑤ 혼맞이굿

혼맞이굿이라는 용어는 쓰임새가 다양하다. 우선 객사한 망자의 혼을 처음으로 부르기 위하여 길거리에서 무의를 하고, 넋이 오면 집으로 데려와 씻김굿을 한다. 이때 길거리에서 하는 무의가 좁은 의미에서의 혼맞이굿이며, 이 무의와 집에서 행하는 씻김굿까지 모두 합치면 넓은 의미의 혼맞이굿이다.

한편, 날받이 씻김굿에서도 가장 주빈이 되는 망자가 객사한 경우 안당이라는 거리 다음에 길거리로 나가 혼맞이굿을 하여 혼을 데려다 놓은 후 다음의 무의를 계속한다. 여기서 혼맞이굿은 객사한 넋을 처음 부르는 길거리의 혼맞이와 집에서의 씻김굿을 합친 것을 말한다. 먼저 길거리에서는 한 가족원으로 하여금 신대를 잡게 하고 신대를 통해 그에게 넋이 내리면 집으로 들어와 씻겨준다.

### ⑥ 혼건지기굿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건져 집으로 모셔와 행하는 씻김굿이다. 닭이나 '제숙'을 용왕

에게 바치고 낮이 물길을 가르고 오면 신대로 받아 집으로 모셔온다. 제물을 제숙이라 하는데, 단골들의 용법을 살펴보면 제숙에는 장자풀이형 무가의 한 요소인 ‘대신(代身)’이라는 의미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 ⑦ 저승혼사굿

총각이나 처녀로 죽은 사람들끼리 사후 혼인을 시키면서 하는 굿을 말하는데, 결혼굿이라고도 부른다. 미혼에 이들은 몽달귀신이 되어서 여러 사람 특히 가족에게 해를 끼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영혼들끼리 혼사를 시켜 해원해주면 좋다고 해서 사후 결혼식을 올려주고 굿을 한다. 특히 저승혼사굿 때의 씻김굿은 먼저 처녀 망자의 묘를 총각 망자 묘 옆으로 이장하든가 합장을 하고서 그날 밤 총각 망자 집에서 하는데 뜰에다 차일을 두 곳에 치고 각각 냇을 씻긴다. 그리고 길땀을 할 때만 두 질베를 합쳐 부부씻김굿을 할 때와 같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것이다.